

재일(在日)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

고 광 명*

kkm0630@jejunu.ac.kr

Contents

1. 머리말
2. 이론적 배경
3. 연구대상 및 방법
4. 연구결과
5. 맺음말

Abstract

本研究は日本の社会において在日済州人の企業家がどのような経営活動の特性をもっているかを考察するものである。本研究の結果を要約すると、次のようである。

第一に、在日済州人の企業家は1938年以後より1938年以前に多く生まれ、1970年以後には500万円の資本金で企業を設立してきた。第二に、在日済州人の企業家は5億円未満の売上高を上げており、50名以下の従業員を雇っていた。第三に、在日済州人の企業家は在日済州人の1世に該当する年齢層が多く、特に北済州郡の出身者の場合は、政治的、経済的などの要因によって日本に移住し、主に大阪地域で経営活動を遂行していた。第四に、在日済州人の企業家は10名以下の従業員を雇い、小さな空間で靴、鞆、プラスチック、縫製など製造業の分野で経営活動を遂行していた。

従って、本研究は在日済州人の社会をより一層明確に捉える必要があるため、日本の社会で居住する在日済州人を中心に在日済州人の企業家の経営活動の特性を考察した。結局、在日済州人は、韓人社会の中で占める比重が非常に高く、最初は単純な靴工場、ゴム工場など零細製造業から出発したが、今はパチンコ、焼き肉、建設業、不動産業などで日本人の会社と競争ができる程度の成長を追求している。

Key Words : 在日済州人, 企業家, 経営活動, 製造業, 資本金(재일제주인, 기업가, 경영활동, 제조업, 자본금)

* 제주대학교 교육대학 초등교육연구소 특별연구원 경영학전공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75-B00012).

1. 머리말

재일한인(在日韓人)의 특별영주자(old comers) 수는 2000년 말 507,429명에서 2007년 말 430,229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들은 2007년 기준으로 전체 외국인 등록자 수(2,152,973명)의 약 20%를 차지하여 다른 외국인에 비해 가장 많은 비중을 점유하고 있다. 그 중 재일제주인은 97,651명으로 전체의 약 16.32%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들은 간토(關東)지역에 26,983명(27.6%), 간사이(關西)지역에 64,000명(65.5%)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2개 지역을 합하면 전체 재일제주인 인구의 90,983명으로 93.1%를 차지하고 있다.¹⁾

재일제주인은 일제강점기에 징용, 징병 등 강제적으로 이주(involuntary emigration)되거나 1945년 광복 이후 4·3사건과 전쟁을 피해, 그리고 출가해녀(出稼海女) 등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가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도쿄(東京) 미카와시마(三河島)나 오사카(大阪) 이쿠노구(生野區) 등의 대도시에서 집단적으로 거주하면서 재일제주인의 커뮤니티(communitiy)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이 간사이지역에 많이 거주한 것은 오사카와 고베(神戸)를 중심으로 한 공업지대에서 직공 모집이 많아 취업이 비교적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1922년 10월 제주~오사카 간의 기미가야마루(君代丸) 등 직항로가 취항하면서 일본과의 왕래가 쉬운 지역이라는 점도 작용하였다.²⁾

하지만 이들은 자발적 이주(spontaneous emigration)가 아니었기 때문에 일본사회에 정착하는데 많은 사회·문화적 갈등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항상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에서 불합리한 환경을 극복하고 삶을 영위하고자 문중, 마을, 학교 등 여러 형태의 친목단체인 비공식조직(informal organization)을 형성하면서 혈연(血緣), 지연(地緣), 학연(學緣)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하게 지속되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이러한 네트워크를 형성한 이유는 일본사회 속에서 정신적 지주와 애향심, 그리고 상호간 인적교류를 통해 제주인의 삶을 위한 아이덴티티(identity)를 찾고자 하였기 때문이다.³⁾

1) 入管協會(2007) 『在留外國人統計』, pp.98-99

2) 신행철(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출판부, pp.464-465

더욱이 이들은 이주 초기부터 자본이나 기술을 가지고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기보다는 단순 노동력을 가지고 일본의 저임금 노동시장에 진입하였다. 당시 재일한인들은 부동산 중개업, 야쿠자(役者), 파친코(パチンコ), 야키니쿠(焼肉), 화학제품 관련 등 일본인들이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였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이들은 양곡판매점, 잡화상, 공장노동을 통해서 익힌 기술을 바탕으로 플라스틱, 고무, 유리 관련 가내 수공업과 신발, 가방 관련 봉제업에 종사하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해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共同新聞社(1989)가 재일제주인 기업가를 수록한 『在日韓國人實業名鑑』 자료 등을 통하여 고향에 애향심을 표현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이와 같은 과제를 설정한 이유는 지금까지 단일민족 사상을 고수해 온 일본정부가 국내의 인구통계나 경제통계를 민족이나 민족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분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재일한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이나 경제활동 등은 공식통계로부터 분석할 수 없었던 것이다.⁴⁾ 또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와 제주도와의 관계가 형제를 기반으로 한 상호 동반적 관계로 생각하기보다는 재일제주인 기업가를 지역사회에 일방적으로 물질을 제공해 주는 대상으로만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재일제주인과 관련된 이론적 배경을 살펴본 후, 다음으로 연구대상 및 방법을 알아보며, 마지막으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3) 고광명(2008)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学研究』 第22輯, 韓国日本近代学会, p.188

4) 朴一(2002)은 재일한인의 역사, 법적지위, 민족교육, 정체성 등에 관한 문헌이 다양한 분야에서 대량 출판되었는데, 재일한인의 경제활동에 관한 연구가 극히 드물다고 지적하였다. 그 이유로서 일본관청의 공식통계에는 서구유럽과 같은 이민기업이나 이민노동자에 대한 통계가 거의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朴一(2002) 『在日コリアンの經濟事情』 第11卷, 環, pp.247-251

2. 이론적 배경

2.1. 재일제주인의 의미

재일제주인의 의미는 ‘재일동포(在日同胞)’의 개념을 원용하여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서 일시 체류, 영주권자, 유학, 2·3세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들을 지칭하는 용어들은 제주출신 재일동포, 제주출신 재일교포, 재일 제주출신자, 제주출신 재외교민(교민사회) 등 매우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여기서 ‘재일(在日)’을 규정하는 것이 국가시스템에 따른 한국이나 조선(북한)이라는 국적 표시인지, 우리와 같은 혈통인지, 또는 역사나 문화에 얽힌 의식인지, 나아가서 재일한인의 권리획득을 위해 싸우는 존재인지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다.⁵⁾

현재 일본사회에서 제주도 출신자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한인으로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면서도 다른 본적지 출신자에 비해 강한 지역성을 표출하는 이중구조(二重構造) 성격을 지니고 있다. 1925년 이쿠노구(生野區)에는 다른 지역출신의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재일제주인은 육지출신 재일한인들로부터 ‘섬놈’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폭력과 멸시를 당하는 이중적 차별을 일본사회에서 감수해야만 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도 불구하고 제주도 출신들은 역경을 딛고 일어서는 저력으로 지금의 재일제주인 사회를 형성하여 왔다.⁶⁾

둘째, 재일제주인은 일본문화 속에서 생활하면서도 제주문화를 지키려는 의식이 강한 이면성(裏面性)을 갖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제주문화를 의식하고 간직하기보다는 일본문화에 흡수되어 생활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 원인은 해방 이후 60년이란 세월이 흐르면서 민족의식과 가치관, 생활형태가 다양화되면서 민족교육을 받는 재일동포 자녀가 격감하는 중에 일

5) 尹健次(2002)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pp.285-315

6) 신행철(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研究』 제14집, 濟州学会, p.70

본 국적을 취득하는 재일한인이 증가하고, 제주도와의 인적교류가 감소하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재일한인을 포함한 재일제주인은 바야흐로 국적이나 혈연, 의식 상태나 문화, 그리고 세대교체 등의 측면에서 매우 복잡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로 형성되어 도(道) 단위 보다는 마을(洞·里) 단위의 공동체적(共同體的)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일본에 거주하는 제주도 출신자들이 마을 단위별로 구성된 친목조직이 활성화된 것도 공동체적 성격을 강하게 지닌 생활의 한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사회적 네트워크는 본래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움을 제공하는 상호부조와 친목도모의 기제(基劑)로써 활용되어 재일제주인 사회의 공동체적 연대성을 발휘하는 기능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⁷⁾

넷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동일한 입장의 재일동포 중에서 결혼 배우자를 찾고자 하는 가치체계의 양면성(兩面性)을 지니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 출신자가 일본사회 속에서 생활하여 온 타 지역 출신자와의 교류가 있으면서 일본인보다는 가치체계가 다르더라도 동일한 국가의 사람으로서 수용하려고 했다. 또한 제주도 출신자 속에서도 2·3세는 소위 재일한인으로서 타 지역 출신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본국의 유교적 사고를 흡수하여 개념화했던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제주도의 생활양식이 전달되고 가부장제적(家父長制的) 사고가 강하지 않아 결혼하면 부모와 따로 사는 등의 현상이 발생하였다.⁸⁾

따라서 재일제주인 1세는 온갖 차별과 멸시 속에서 피와 땀으로 재일제주인 사회의 토대를 마련하는 시대를 살았으며, 2·3세는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재일제주인 사회를 보다 공고하게 형성하면서 일본사회에서의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2. 기존연구의 검토

본 연구의 목적은 재일제주인 기업가가 어떠한 경영활동 특성을 갖고 있는지

7) 제주발전연구원(2000) 『100만 제주인의 사회적 통합증진과 역량 극대화 방안 연구』, pp.15-16

8) 高鮮徽(1996) 『在日濟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關東地方を中心に』、新幹社、p.138

를 살펴보는데 있다. 지금까지 재일한인 연구는 이주의 역사적 배경, 법적지위, 아이덴티티 문제, 개인 생활사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재일한인의 경영활동 관련 연구는 소수에 불과한 상태이므로 본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일본에서의 기존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徐竜達(1982)은 재일한인 상공인을 중심으로 개별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경영활동을 분석하였다. 그에 따르면 경영자 비율은 684명(62%)이었으며, 연령별은 30대가 가장 많았고, 업종별은 제조업, 飲食業, 遊技・娛樂業, 금융・부동산업 등에 종사한 것으로 나타났다.⁹⁾ 李光奎(1982)는 도쿄에 거주하는 재일한인 상공인(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에 따르면 재일한인 상공인들은 30대 이상이 가장 많고, 飲食業, 遊技・娛樂業, 금융・부동산업 등 주로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며, 도시에 거주하면서 겸업이 적고, 단일 업종에 충실하며 영세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¹⁰⁾ 徐竜達・全在紋(1987)은 재일한인 1만 명 이상이 거주하며 한국인상공회가 존재하는 도쿄, 오사카, 후쿠오카 등을 포함한 10곳의 재일한인 상공인 조직을 동원하여 소속회원 수나 업종 분포, 지역산업의 업종 및 회원의 고민거리 등을 조사하였으며, 재일한인들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업종분포에 따른 지역간 특성을 분석했다.¹¹⁾ 또한 徐竜達(1989)은 도쿄를 중심으로 한 업종별 조사를 통해 제조업 21.3%, 서비스업 18.3%, 飲食業 17.6%, 기타 서비스업 9.1%, 도·소매업 8.2%, 건설업 7.2%, 금융업 7.0% 등 오사카 조사와 비교하여 2차 산업보다 3차 산업의 구성비율이 높다는 것을 발견하였다.¹²⁾ 吳圭祥(1992)은 해방 이후 일본에서 재일조선인 상공인들이 어떻게 생활해 왔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재일조선인의 역사, 상공업활동이나 경영활동의 흐름에 대해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재일조선인의 제 문제를 비롯한 상공업활동 분석과 연구에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¹³⁾

9) 徐竜達(1982) 『在日韓国商工人の意識と実態について』 『青商』、東京韓国青年商工会、pp.129-139

10) 李光奎(1982) 『在日韓国商工人の意識と実態』 『青商』、東京韓国青年商工会、pp.174-183

11) 徐竜達・全在紋(1987) 『在日韓国・朝鮮人の商工業の実態』 『韓国・朝鮮人の現状と将来』、社会評論社、pp.221-259

12) 徐竜達(1989) 『在日韓国商工人の意識と実態』、在日韓国青年商工人連合会、pp.27-72

13) 吳圭祥(1992) 『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雄山閣、pp.3-17

姜 誠(1996)은 1995년 12월 기준으로 일본 전국의 파친코 점포 수가 1만 8,244개이었지만, 한개 업자가 복수의 법인 또는 개인명으로 경영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6,000개~8,000개로 추정하였다. 그는 재일한인들이 파친코 산업에 집중하는 이유로서 ‘국적차별에 의한 취직차별로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에 취업할 수 없었던 시대가 장기화되고 사회적 위신이 낮아 일본기업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 3D 업종이나 틈새시장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하였다.¹⁴⁾ 辺真一(2000)은 재일한인들이 경제 분야에서 두드러지게 활약하고 있는 것에 주목하여 재일한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이 야키니쿠나 파친코와 같이 일본사회의 주변산업에서 차별받고 생활하는 존재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인들보다 생활수준이 높았다고 평가하였다.¹⁵⁾ 金美德(2002)은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자가 많고 경영자원에 한계가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면승부보다는 틈새나 기습전법 또는 상식과괴 등으로 상당한 성공을 거두어 왔다고 분석하였다. 그는 앞으로 이들이 정면 돌파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고, 지속가능한 기술개발과 신선한 발상으로 기업을 경영하지 않으면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⁶⁾ 朴健市(2002)는 재일한인 기업 중에 파친코산업이 가장 주요한 산업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친코 점포 뿐만 아니라 파친코 대(臺)를 만드는 파친코 제조메이커가 거대산업을 형성하고 있고, 약 70% 이상이 재일한인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¹⁷⁾ 池東旭(2002)에 의하면 재일한인들은 파친코 등의 유기업, 고리대금업을 포함한 금융업 및 부동산업, 그리고 飲食業 등 3대 업종에 집중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⁸⁾ 吳民学·金哲秀(2002)는 일본 통계청 국제조사보고를 이용하여 재일한인의 상공인 수와 취업자 수를 추측하여 재일한인의 취업자별 인구를 산업별·고용형태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으며, 재일한인 사회의 산업구조와 주력업종을 파악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고 주장했다.¹⁹⁾ 河明生(2003)에 따르면 재일한

14) 姜 誠(1996) 『5グラムの攻防戦—パチンコ30兆円産業の光と影』、集英社、pp.152-155

15) 辺真一(2000) 『強者としての在日』、ザ・マサダ、p.20

16) 金美德(2002) 『日本のベンチャー企業と在日コリアン企業の比較研究』 『同胞經濟研究』 第5号(夏)、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会、p.34

17) 朴健市(2002) 『焼肉産業と在日同胞』 『韓商連四十年史』、在日韓国商工会議所、p.201

18) 池東旭(2002) 『コリアンジャパニーズ』、角川書店、p.33

인은 일본사회 속에서 공직에 취업할 수 없었으므로 영리활동 이외에는 자기실현 방법이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들 중에 재능이 뛰어난 사람과 경제적 상승에 대한 지향성이 강한 사람들이 영리활동에 의해 자기실현을 이루고자 하였으며, 특히 이들은 영리활동에 있어서 일본인들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난 탁월성을 발휘하였다고 했다.²⁰⁾ 최석신 외(2005)는 주로 문헌조사와 일본 현지에서의 직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재일코리안 소비패턴과 소득규모, 산업구조, 주력업종 그리고 한국과의 관련성 등을 분석하여 재일코리안 자영업자들의 경제 환경과 실태를 사실에 입각하여 객관적인 입장에서 서술하였다.²¹⁾ 임영언 외(2006)는 일본 현지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문헌조사와 면접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민족자산인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에 관해 파악하였다.²²⁾ 고광명(2006)은 일본사회에서 재일제주인의 직종을 파악하고 상공업활동의 특성을 해명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주사회와 재일제주인 사회간의 생산적인 교류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임채완 외(2007)는 재일한인 기업가 및 기업의 특징을 기술하면서 재일한인 기업의 네트워크 실태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특히 사회적 자본이라는 측면에서 재일한인들이 조직화하여 형성하고 있는 단체 및 기업을 중심으로 파악하여 사례연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²³⁾

따라서 이상의 기존연구를 종합하면 재일한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관련 연구는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으나, 사실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드문 실정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출신과 대비되는 재일제주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경영활동 특성을 고찰하여 기존연구의 공백을 보완하는데 그 의미를 두고자 한다.

19) 吳民學·金哲秀(2002) 「統計に見る在日朝鮮商工人數に関する研究」 『同胞經濟研究』 第6号、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会、p.18

20) 河明生(2003) 『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在日韓人事例研究』、ITA、pp.16-17

21) 최석신 외(2005) 『재일코리안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pp.7-9

22) 임영언 외(2005)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 집문당, pp.33-35

23) 임채완 외(2007)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북코리아, pp.33-66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본 연구는 共同新聞社(1989)가 재일한인 기업가를 수록한 『在日韓國人實業名鑑』 자료를 기본적인 원 자료(raw data)로 하고 있다. 이 자료에 수록된 기업가는 약 2,500명(大阪府 약 1,500명, 京都府 약 400명, 兵庫縣 약 600명)에 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재일한인 기업가 중 일본사회에서 경영활동을 수행한 제주도 출신자 기업가 562명(大阪府 523명, 京都府 8명, 兵庫縣 31명)을 우선 추출한 후, 경영활동 관련 자료가 양호한 88명(大阪府 86명, 兵庫縣 2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단, 본 연구에서는 일부 항목에서의 누락으로 인해 분석에서 탈락된 경우도 유의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지만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기본 정보 이외에 보다 구체적이고 분석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목별 자료가 미비한 기업가를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이처럼 본고에서 이 자료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첫째, 1910년 이전부터 1960년 이후에 출생한 주요 재일제주인 기업가가 거의 포함되어 있으며, 개인적 요인을 시계열적으로 다룰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재일제주인 기업가(88명)를 조사한 자료에 기재된 내용이 시기별로 잘 정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표본특성으로서 추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셋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별 내용이 개인적 요인을 포함한 출생년도, 출신지역, 학력, 업종, 설립년도, 설립자본금, 연간매출액, 종업원 수 등 기업가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의 조사 자료는 보다 유용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8가지 표본특성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수치를 우선 기입하고, 이에 근거하여 명목적으로 측정된 자료임을 밝혀둔다.

3.2. 연구방법

본 자료는 원래 기업가(88명) 조사를 통해 얻은 내용을 Data Sheet로 전기하여 각 내용에 대한 자료를 수록하였기 때문에,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특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수치와 같은 기본정보 이외에 보다 분석적인 정보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에 수록된 모든 경영활동과 관련한 수치를 M/S Excel 프로그램에 Coding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다시 말하면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목록자료를 Excel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88명 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요인을 포함한 출생년도, 출신지역, 학력, 업종, 설립시기,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수 등 기업가의 경영활동과 관련하여 어떠한 특성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10.0 version이고, 사용된 통계기법은 빈도분석(frequencies analysis)과 교차분석(cross tab)이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 자료의 분석을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945년 이전부터 1989년까지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주요 기업가를 대상으로 8가지 항목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① 출생년도인 경우는 1938년 이전과 1938년 이후와 같이 2가지의 시기로 구분하였다. 이와 같이 기업가의 출생 시기를 구분한 것은 1938년 이후 일본정부의 전쟁 수행을 위한 강제 조치의 일환으로 제주도 출신자들이 이주하여 재일제주인 사회를 형성해 가는 시기로 인식하여 시대의 경과에 따라 어떠한 변화가 발생했는가를 검토하기 위함이다. ② 출신지역인 경우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과 같은 4개 항목을 갖는 명목척도로 변환하였다. 이와 같이 지역을 4개의 카테고리로 묶은 이유는 당시 기업가의 출신지역을 감안하여 1946년 도제(道制)실시 이후 4개 지역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다. ③ 학력인 경우는 본래 중졸, 고졸, 대졸, 불명과 같이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④ 업종인 경우는 건설, 제조, 상사·도매업, 소매·판매, 금융·증권·보험, 부동산, 운수, 정보서비스, 기타(다 업종)와 같이 10가지로 구분되었으나 분석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⑤ 설립시기인 경우는 1950년 이전, 1960~1969년, 1970년 이후와 같이 3개로 구분하였다. ⑥ 설립자본금인 경우는 500만 엔 이하, 500만 엔~1,999만 엔, 2,000만 엔 이상과 같이 3개로 구분하였다. ⑦ 연간매출액인 경우는 2.25억 엔 이하, 2.26~5억 엔, 5.01~15억 엔, 15.1억 엔 이상과 같이 4개로 구분하였다. ⑧ 종업원 수인 경우는 50명 이하와 51명 이상과 같이 2개로 구분하였다.

4. 연구결과

4.1. 표본특성

<표 1>에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표본특성을 보면, 출생년도는 1938년 이전이 49명(55.7%), 1939년 이후가 39명(44.3%)이며, 출신지역은 북제주군이 38명(43.2%)으로 가장 많고, 제주시 23명(26.1%), 남제주군 14명(15.9%), 서귀포시 13명(14.8%) 순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고졸 33명(37.5%), 대졸 25명(28.4%)이며, 불명인 경우도 29명(33.0%)으로 나타났다. 업종은 제조업이 48명(54.5%)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상사·도매 9명(10.2%), 부동산 8명(9.1%), 정보서비스 8명(9.1%)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 시기는 1970년 이후가 36명(40.9%)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1960~1969년 29명(33.0%), 1950년 이전 23명(26.1%)으로 나타났다. 설립자본금은 500만 엔 이하 32명(36.4%), 2,000만 엔 이상 29명(32.9%), 500만 엔~1,999만 엔 27명(30.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은 2.26~5억 엔 25명(28.4%), 2.25억 이하와 5.01~15억 엔이 각각 22명(25.0%), 15.1억 엔 이상 19명(21.6%)으로 나타났고, 종업원 수는 50명 이하 73명(83.0%), 51명 이상 15명(17.0%)으로 나타났다.

〈표 1〉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표본 특성

(단위 : 명, %)

구분	항목	N	빈도	구분	항목	N	빈도
출생시기	1938년 이전	49	55.7	업종	부동산	8	9.1
	1939년 이후	39	44.3		운수	2	2.3
출신지역	제주시	23	26.1		정보서비스	8	9.1
	서귀포시	13	14.8		기타(다 업종)	6	6.8
	북제주군	38	43.2	설립시기	1959년 이전	23	26.1
	남제주군	14	15.9		1960~1969년	29	33.0
학력	중졸	1	1.1		1970년 이후	36	40.9
	고졸	33	37.5	설립 자본금	500만 엔 이하	32	36.4
	대졸	25	28.4		500~1,999만 엔	27	30.7
	불명	29	33.0		2,000만 엔 이상	29	32.9
업종	농림·수산·광업	0	0.0	연간 매출액	2.25억 엔 이하	22	25.0

	건설	2	2.3		2.26~5억 엔	25	28.4
	제조	48	54.5		5.01~15억 엔	22	25.0
	상사·도매	9	10.2		15.1억 엔 이상	19	21.6
	소매·판매	4	4.5	기업규모	50명 이하	73	83.0
	금융·증권·보험	1	1.2		51명 이상	15	17.0

4.2.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

4.2.1. 출생 시기별 특성

<표 2>에서 출생 시기별에 따른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설립시기($F=4.850$, $p=.088$)에서는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설립자본금($F=2.143$, $p=.343$), 연간매출액($F=2.627$, $p=.453$), 기업규모($F=.137$, $p=.712$) 등은 출생 시기별에 따라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재일제주인 1세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아직도 많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일본으로 이주한 1세대의 경우 생계유지의 유일한 수단으로서 상업이나 소규모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표 2〉 출생 시기별 특성

구분	출생 시기별	N	F	P-value
설립 시기	1938년 이전	49	4.850	.088*
	1939년 이후	39		
설립자본금	1938년 이전	49	2.143	.343
	1939년 이후	39		
연간매출액	1938년 이전	49	2.627	.453
	1939년 이후	39		
기업규모	1938년 이전	49	.137	.712
	1939년 이후	39		

주 : * $p<0.1$, ** $p<0.05$, *** $p<0.01$

4.2.2. 출신지역별 특성

<표 3>에서 출신 지역별에 따른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설립시기

(F=13.312, p=.038)에서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설립자본금(F=10.745, p=.097)에서는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연간매출액(F=5.486, p=.790), 기업규모(F=3.979, p=.264) 등은 출신 지역별에 따라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정치적, 경제적 등의 요인으로 인해 많은 복제주출 출신자들이 일본으로 이주하였으며, 특히 오사카 지역에서 도민회(道民會)나 출신 마을을 중심으로 하는 친목회 등과 같은 사회적 네트워크 속에서 경영활동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표 3〉 출신 지역별 특성

구분	출신 지역별	N	F	P-value
설립시기	제주시	23	13.312	.038**
	북제주군	38		
	서귀포시	9		
	남제주군	18		
설립자본금	제주시	23	10.745	.097*
	북제주군	38		
	서귀포시	9		
	남제주군	18		
연간매출액	제주시	23	5.486	.790
	북제주군	38		
	서귀포시	9		
	남제주군	18		
기업규모	제주시	23	3.979	.264
	북제주군	38		
	서귀포시	9		
	남제주군	18		

주 : * p<0.1, ** p<0.05, *** p<0.01

4.2.3. 업종별 특성

〈표 4〉에서 업종별에 따른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설립시기(F=8.789, p=.012)와 기업규모(F=3.961, p=.047)에서는 유의수준 5% 이내에서 차이가 나

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설립자본금($F=3.051, p=.217$), 연간매출액($F=3.540, p=.316$) 등은 업종별에 따라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1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여 작은 공간에서 신발, 가방, 플라스틱, 봉제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경영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주 초기에 제주도 출신자들이 소규모 영세업종에 집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본이나 생산수단 부족의 원인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섬 지역 출신이라는 차별적인 요소가 강하게 존재했다고 여겨진다.

〈표 4〉 업종별 특성

구분	업종별	N	F	P-value
설립시기	제조업	50	8.789	.012**
	비제조업	38		
설립자본금	제조업	50	3.051	.217
	비제조업	38		
연간매출액	제조업	50	3.540	.316
	비제조업	38		
기업규모	제조업	50	3.961	.047**
	비제조업	38		

주 : * $p<0.1$, ** $p<0.05$, *** $p<0.01$

4.2.4. 설립 시기별 특성

〈표 5〉에서 설립 시기별에 따른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이 분석결과를 보면,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설립자본금($F=14.575, p=.006$)과 기업규모($F=11.512, p=.003$)에서는 유의수준 1% 이내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연간매출액($F=11.217, p=.082$)에서는 유의수준 10% 이내에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것은 재일제주인 기업가가 경영활동을 영위하는 경우 다른 경영활동 특성 요인보다 설립자본금, 연간 매출액, 기업규모를 중요하게 인식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재일제주인은 해방 이전의 식민지 지배를 당한 경험과 각종 차별에 따라 생계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 출신자 기업가들은 1960년대 일본의 고도 경제 성장과 맞물려 1970년 이후에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재일제주인 2세들은

재일제주인 1세 기업가들의 기반을 발판으로 삼아 1970년대 이후 가업계승이나 창업에 뛰어들면서 다양하게 경영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5〉 설립 시기별 특성

구분	설립 시기별	N	F	P-value
설립자본금	1959년 이전	23	14.575	.006***
	1960년~1969년	29		
	1970년 이후	36		
연간매출액	1959년 이전	23	11.217	.082*
	1960년~1969년	29		
	1970년 이후	36		
기업규모	1959년 이전	23	11.512	.003***
	1960년~1969년	29		
	1970년 이후	36		

주 : * p<0.1, ** p<0.05, *** p<0.01

5. 맺음말

5.1. 연구결과의 요약

본 연구에서는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특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으며, 향후 재일한인을 다루는 연구 분야에서 연구주제를 확장하고 학문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1938년 이후보다 1938년 이전에 많이 출생하였으며, 재일제주인 1세에 해당되는 연령층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세대교체가 급격히 진전되면서 기업승계상의 문제, 산업구조 변화의 부적응, 급변하는 국제경제 흐름에 부응하지 못하고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둘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1970년 이후에 500만 엔 이하의 자본금을 갖고 기업을 설립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들 대부분이 일본사회 속에서 오사카 지역을

중심으로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일본 이주 초기에 자영업 규모로 기업규모가 작았지만 회사가 오래 될수록 종업원 수가 점점 증가하고 기업규모도 확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조그마한 공간에서 신발, 가방, 플라스틱, 봉제 등 제조업 분야에서 가장 많은 경영활동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시작한 자영업이나 소규모 영세기업이 가족경영의 소규모 자영업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2.26억~5억 엔 정도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으며, 50명 이하의 종업원을 고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대부분이 영세기업 또는 가족경영이 많고 종업원 규모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영세업자가 많았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재일제주인 기업가는 일본 이주 초기에 단순한 신발공장, 고무공장 등 영세 제조업에서 출발하였으나 지금은 파친코산업, 야키니쿠산업, 토목건설업, 부동산업 등에서 일본인 회사와 경쟁할 정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재일한상(在日韓商)이 일본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재일한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향후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도 크게 다양해지고 점차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여겨진다.

5.2. 연구의 시사점 및 한계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들은 최근 재일한상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되는 시기에 국내·외 한인사회 연구자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기대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도민들은 일본사회 속에 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에 대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재일제주인의 삶이 지니는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되었다. 둘째, 재일제주인은 일본 사회 속에서 재일 2세나 3세가 독자적으로 경영활동을 영위한 경우도 다소 있었지만 대부분 1세대가 가족주의 경영을 통하여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재일제주인은 일본에서의 사회구조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나름대로의 경영활동을 추구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일본으로 이주한 한인 중에서 제주도 출신자가 비교적 높게 차지하였던 것은 정치적, 경제적 등으로 인해 이주한 요인도 있었지만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적 특수성이 비교적 중요하게 작용하였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현재 기초통계 자료가 부족한 시점에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고찰하였다는 것은 일본사회 속에서 재일제주인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기존의 경험적 자료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몇 가지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共同新聞社(1989)가 재일제주인 기업가를 수록한 『在日韓國人實業名鑑』 자료를 가지고 전개하였기 때문에 자료수집에 따른 한계를 가지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연구 자료를 보다 다양하게 확대시키고, 다른 지역출신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통해 연구결과를 보완시키면서 일반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4개 항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고 새로운 연구방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실증적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재일제주인 기업가만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본 연구의 결과가 다른 지역출신자인 재일한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에 대해서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1980년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시도하였지만, 향후에는 본 연구과제에 대한 논의를 정밀화하면서 1980년 이후에 자발적으로 이주한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을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 고광명(2008) 「재일제주인의 삶과 사회적 네트워크」 『日本近代学硏究』 第22輯, 韓國日本近代学会, p.188
- 신행철(2004) 『제주사회와 제주인』, 제주대학교출판부, pp.464-465
- _____ (1997) 「제주인의 정체성과 일본 속의 제주인의 삶」 『濟州島硏究』 제14집, 濟州学会, p.70

- 尹健次(2002) 「21세기를 향한 ‘在日’의 아이덴티티」 『근·현대 한일관계와 재일동포』, 서울대학교출판부, pp.285-315
- 임영언 외(2005) 『재일코리안 기업의 경영활동』, 집문당, pp.33-35
- 임채완·임영언·최석신·나주몽(2007) 『재일코리안 기업의 네트워크』, 북코리아, pp.33-36
- 제주발전연구원(2000) 『100만 제주인의 사회적 통합증진과 역량 극대화 방안 연구』, pp.15-16
- 최석신·임채완·백형엽·조성도·이석인(2005) 『재일코리안사회의 경제환경』, 집문당, pp.7-9
- 姜 誠(1996) 『5グラムの攻防戦—パチンコ30兆円産業の光と影』, 集英社, pp.152-155
- 高鮮徽(1996) 『在日济州島出身者の生活過程：関東地方を中心に』, 新幹社, p.138
-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国人実業名鑑』.
- 金美德(2002) 「日本のベンチャー企業と在日コリアン企業の比較研究」 『同胞經濟研究』 第5号(夏)、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p.34
- 李光奎(1982)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実態」 『青商』, 東京韓國青年商工会, pp.174-183
- 朴健市(2002) 「焼肉産業と在日同胞」 『韓商連四十年史』, 在日韓國商工会議所, p.201
- 朴 一(2002) 『在日コリアンの經濟事情』 第11卷、環, pp.247-251
- 徐竜達(1982)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実態について」 『青商』, 東京韓國青年商工会, pp.129-139
- 徐竜達(1989) 『在日韓國商工人の意識と実態』, 在日韓國青年商工人連合會.
- 徐竜達·全在紋(1987) 「在日韓國·朝鮮人の商工業の実態」 『韓国·朝鮮人の現状と将来』, 社会評論社, pp.221-259.
- 呉圭祥(1992) 『在日朝鮮人企業活動形成史』, 雄山閣.
- 呉民学·金哲秀(1996) 「統計に見る在日朝鮮商工人数に関する研究」 『同胞經濟研究』 第6号、在日本朝鮮人商工連合會, p.18
- 入管協會(2000) 『在留外国人統計』.
- 入管協會(2007) 『在留外国人統計』, pp.98-99
- 池東旭(2002) 『コリアンジャパニーズ』, 角川書店, p.33
- 河明生(2003) 『マイノリティの起業家精神：在日韓人事例研究』, ITA, pp.16-17
- 辺真一(2000) 『強者としての在日』, ザ・マサダ, p.20

❖ 투고일 : 2009. 6. 30

❖ 심사일 : 2009. 7. 16

❖ 심사완료일 : 2009. 7. 28

〈부록〉 재일제주인 기업가의 경영활동 내역

(단위 : 백만 엔, 억 엔, 수)

번호	기업가	출생년도	출신지역	학력	업종	설립년도	자본금	매출액	종업원 수
1	강덕찬	1942	서귀포	고졸	C	1985	500	1	13
2	강문남	1956	구좌		C·D	1955	2350	30	100
3	강성충	1926	서귀포		C	1950	1000	2.5	10
4	강수룡	1936	서귀포		I	1969	2000	1.2	25
5	강우성	1950	서귀포	대졸	C	1949	3200	15	80
6	강용언	1954	세화		C	1955	8100	150	300
7	강중일	1928	서귀포	대졸	C	1972	1200	1.1	11
8	강창길	1952	성산		C	1975	2000	3	40
9	강충남	1926	남제주	대졸	C	1955	8100	150	300
10	강태수	1929	제주시	고졸	D	1962	500	8	25
11	강혜삼	1943	표선		C	1940	6000	12	15
12	강홍기	1928	서귀포		C	1970	2000	5	20
13	강길용	1935	북제주	고졸	I	1974	300	1.5	5
14	강성범	1937	중문		C	1948	10000	65.9	110
15	강계도	1939	서귀포	대졸	I	1971	1100	1	11
16	강중하	1940	한림		C	1968	1000	5	11
17	강철희	1943	애월	고졸	G	1979	500	14	18
18	고기수	1934	구좌	대졸	E	1982	3000	15	70
19	고산수	1936	표선		G	1973	200	10	8
20	고신부	1947	제주시	고졸	C	1975	100	1.8	15
21	고익중	1922	애월		C	1968	300	0.9	10
22	고진수	1931	성산		C	1947	2000	15	22
23	고창조	1933	광령	고졸	C	1969	4000	30	150
24	고훈근	1932	제주시		D·G·H	1966	2000	20	10
25	고춘학	1931	제주시		C	1951	400	0.6	8
26	고행수	1933	한림		C	1961	500	1	5
27	김경옥	1922	구좌	고졸	I	1971	200	1.8	20
28	김경희	1940	구좌	고졸	C	1969	500	3.5	86
29	김달효	1925	성산		H	1967	1800	4.7	48
30	김두화	1920	제주시	고졸	D	1950	2000	1.8	7
31	김문봉	1953	조천		C	1966	200	0.8	7
32	김민영	1945	제주시	고졸	C	1964	500	0.78	11
33	김방언	1944	구좌		I	1971	200	1.8	20
34	김상수	1920	제주시	고졸	C	1963	2400	14.9	23

35	김성대	1940	제주시	대졸	D	1976	500	45	12
36	김성수	1938	구좌	고졸	G	1970	250	24	4
37	김수옥	1942	제주시	고졸	C	1970	500	0.6	9
38	김수황	1942	서귀포	대졸	C	1957	1900	25	37
39	김순기	1931	제주시	고졸	C	1968	1000	3.5	21
40	김양삼	1945	제주시	대졸	H	1978	500	3.9	28
41	김양웅	1945	제주시	대졸	G	1971	4800	30	8
42	김영행	1956	제주시	고졸	C	1980	1000	0.25	2
43	김정배	1923	한림	고졸	G	1980	1000	2.3	7
44	김정순	1932	표선		C	1966	500	5	8
45	김철삼	1944	제주시	고졸	D	1969	1000	4.5	8
46	김치영	1948	표선	고졸	C	1963	1000	2.5	10
47	박기동	1954	제주시	대졸	C	1967	1000	7	25
48	박동식	1924	애월	고졸	F	1981	200	1	9
49	박동진	1930	서귀포	대졸	C	1959	3500	21.6	120
50	박성구	1933	제주시	대졸	B	1966	1000	5.5	38
51	박재춘	1921	구좌		G	1961	1000	6.2	70
52	박정희	1945	제주시	대졸	C	1967	4500	34	122
53	백국형	1933	제주시	고졸	C	1986	2000	12.3	36
54	소경치	1945	조천	고졸	E	1978	500	4	7
55	송용택	1952	남제주	대졸	G	1965	2000	5	7
56	안부송	1944	애월	대졸	C	1972	700	7	35
57	양두경	1938	한림	고졸	C·I	1921	500	35	70
58	양창수	1922	조천	고졸	C	1947	1000	3	35
59	양태행	1949	조천	대졸	C	1967	200	3	16
60	오두경	1931	구좌	대졸	C	1949	3000	8	29
61	오문필	1930	한림	대졸	D	1964	3500	100	25
62	오영수	1954	제주시	대졸	D	1954	1600	27	32
63	오진성	1928	제주시	대졸	D	1954	1600	27	32
64	오탈용	1928	구좌		C	1958	4000	15	80
65	윤창의	1944	한림		G	1976	500	10	5
66	이근배	1932	조천	대졸	D·H	1961	600	2.1	3
67	이동백	1923	조천		E	1979	3000	2	35
68	이순방	1927	안덕		B	1963	500	0.8	16
69	이순안	1939	대정	대졸	G·I	1953	2000	103	110
70	이원주	1950	구좌	고졸	C	1983	500	5	10
71	이정하	1916	서귀포		C	1988	1000	9	15
72	이종훈	1923	제주시		E	1964	1500	0.065	4

73	이태훈	1923	제주시		C	1983	400	3	25
74	이평년	1917	중문		C	1955	100	3	15
75	임영찬	1932	구좌	고졸	C	1972	2000	15	100
76	임충량	1941	한경	대졸	D	1973	150	26	7
77	임태련	1925	대정	고졸	C	1953	2000	5	22
78	임행범	1955	대정	대졸	C	1953	2000	5	22
79	조태화	1932	한림	고졸	D	1965	200	6.5	11
80	차재철	1952	한림	고졸	I	1981	800	5	11
81	최방원	1954	한경	고졸	C	1981	1000	3	12
82	한건삼	1941	한림	고졸	I	1984	500	18	23
83	한동구	1926	한림	고졸	I·G	1960	1000	5	7
84	한유탉	1944	구좌		C	1976	1000	8	35
85	현영하	1936	제주시	대졸	C	1982	1000	5.4	25
86	현재옥	1923	서귀포	중졸	C	1958	1000	4	16
87	강영남	1943	구좌	고졸	I	1979	500	1	7
88	오남홍	1936	남원	고졸	C	1967	3000	8.2	11

주 : A(농림·수산·광업), B(건설), C(제조), D(상사·도매), E(소매·판매), F(금융·증권·보험), G(부동산), H(운수), I(정보서비스)

자료 : 共同新聞社(1989) 『在日韓人實業名鑑』에서 필자 조사 작성.